노스님 복지를 위한 승보공양
• AR5후원 : 049-700-1071(대표 1 보관중)
• 적정신청 : 022011-1726, 조계종 홈페이지
대한불교조계종후원인 오유화지(1)

佛教新聞

bulgyo.com

千年의 香을 듣는다
www.cwh.co.kr ☎ 054-933-6371

1960년 1월 1일 창간 주간제 발행

불기 2557년 4월 20일(3의1년 / 단기 4346년 부력 3월11일) 대표전화 (02)730-4488 제2906호 토

"불교유산 세계화 국가차원 노력"

박 대통령 '국민행복기원대법회' 참석
'우리나라 큰 보배' …체계적 관리 약속
총무원장 스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강조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박근혜 대통령이 불단에 연등을 올리고 있다. 신재호 기자 sir82@bulgyo.com

"연등회와 팔만대장경, 사찰음식, 템플스테이는 우리나라의 큰 보배다. 우리나라 전통의 원형인 불교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세계화하는데 국가에서 노력하겠다. 불교계가 앞장 나서주길 당부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이 원을 이루고 행복을 누리는 국가의 비전" 의 근원으로 불교문화의 성장을 제시했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의 케텍 호텔에서 봉행된 '팔만도 콘퍼런스 국민행복을 위한 기원대법회' 현장에서다. 이날 박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연등회와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 그리고 사찰음식, 템플스테이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재 자산으로 꼽고, 국가에서 이를 관리하며 발전시키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 불교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호국의 방패를 놓지 않았다. 지금이 호국불교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발휘할 때 라며 "북한은 지금이라도 더불어 사는 길로 나와야 한다."고 상생의 정신을 강조했다.

한국불교문화재의회(장진호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주관으로 열린 이날 법회는 불기 2557년 부처 님오신날을 맞아 정관계 및 교계 지도자 등 1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불교계의 염원을 담아 진행됐다.

'이땅고' 공연팀의 문묵공연 연등축제 음보영상 시청, 대한불교조 계종사회복지 공연에 이은 본행사는 명종과 법고 의식을 시작으로 참여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어 원법공양 의식이 진행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불단에 연등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합장 초, 향 등을 주요 귀빈 이 차례로 공양을 올렸다. 원법공양에 이어 태고종 총무원장 인곤스님 의 고불단 남녀,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장사의 경정불등에 이어 조계 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봉행사로 이어졌다.

총무원장 스님은 봉행사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님은 "우리의 중심이 잡혀 있을 때 우리의 문명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으며 한반도의 미래를 올바로 만들어 갈 수 있다"며 자주와 평화, 번화대단결의 "4대북공동성명의 원칙을 존중하고 제시했다. 이어 "국민의 행복에 있어 경제는 지극히 현실적인 조건"이라며 "기난하고 소외된 이들, 박탈감한 이들을 가슴에 품고 그 아픔을 함께하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경제정책이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 한반도에서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광목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갈등을 봉합으로 반목을 화합으로 이끌며 한반도의 새로운 시대가 오기를 일심으로 기원한다"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편 이날 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주요 원단 총무원장 스님 등 내빈과 박근혜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남수 교육부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정갑윤 국회 정개의장을 비롯한 불자 이천 등 10000여 명이 동참했다.

안지수 기자 jisuh@bulgyo.com

나이들면 여기저기 눈치 빈 농가 찾아드는 수좌들

■간화선 선양 특별기획 ④

경남 거창군 가북면의 한 산 중턱에는 10여 가구가 모여 사는 농촌마을이 있다. 면사무소에서 출발해 구불구불한 좁고 가파른 길을 1시간30분 정도 걸어야 나갈 수 있는 마을이다.

이 작은 마을에 수좌 스님이 산다. 60년 된 농가를 개조해 만든 토굴이다. 원석지붕에 흙을 얹어 얇은 전형적인 농가로 본 하나 겨우 누울만한 방 2칸이 전부다. 아궁이를 때서 방구들을 덥히는 구조로 집 한 편에는 장작더미가 쌓여 있다.

수좌 절반 해제철 갈곳 없어
짐 챙고 귀가 위해 토굴 마련
여장이 마련된 입대 하기도

대중생활 원하지만 어려워
검류터 TV 등에 노출
수행공동체 병폐 '우려'

지난 10일 찾아간 토굴에는 온기가 없었다. 낮에는 불을 때지 않는 탓이다. 반바지에서 울어오는 한기로 부들부들 떨리는 몸을 자 한 한으로 겨우 누웠다. 3년 전 도반의 소개로 이곳에 들어온 B스님은 여름과 겨울 30간거를 선선한 구멍이다.

B스님은 전남 지고 벌공을 구하고 양식을 팔느라 하루를 보냈다. 거친 주먹만으로 연명하는 등 어법한 수좌의 삶과는 동떨어졌지만 몸이까지 굶지 않으과 노력하고 있었다. 해일 겨은 시간에 지고 있어나 공양하고 오후에는 정진한다. 가까운 곳에 텃밭을 일궈다. B스님은 "절은 시절에는 묘향정진 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산월에 걸맞은 몸고 쉴 한 한 공간이 필요했다"며 "수좌로서 대중생활이 가장 좋지만 토굴에서 살 수밖에 없는 현련이 부끄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토굴이라고 사정이 나은 것은 아니다. 경북 영천시 신녕면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는 4평의 수좌 스님들이 모여 산다. 58년(1968) 규모의 아파트는 수좌 스님들이 해제 비를 모으고 대출을 받아 장만했다. 산월에 모여 정을 붙고 까니 문제를 해결하는 이곳에서 스님들에게 호간스런 공양은 기대하기 힘들다. 반찬이라고는 김치에 된장이 전부다. 좁은 곳간에 동거동가 살다보니 해제기간 수행은 꿈도 꾸기 어려운 실정이다.

수좌 스님들이 해제 후 갈 곳이 없어 떠돌고 있다. 시골 빈 집이나 지방의 한 아파트를 얻대한 토굴에서 기거하는 것은 그나마 행운이 나은 편에 속한다. 전국선원수좌회는 전체 수좌 2000여 명 가운데 2000명은 결제기간에 전국 선원에서 방부를 들이고, 나머지 3000여 명은 토굴 등 지역에 정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산월이다. 선원에서 정진한 후 해제철 맞이 사월도 돌아가는 수좌는 정말 드물게 마저지 못한다. 2300명 수좌 가운데 1200명은 해제 후 토굴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선원수좌회는 추정하고 있다.

수좌들은 왜 토굴에서 살아가는가. 해제 후 갈 산월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산월에도 문을 여는 선원이 수좌 가능한 인원은 수좌 1000분당 150~200명 정도다. 대략 1500명 이상의 수좌들은 갈 곳이 없다. 은사나 사형사제의 사형제 갈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눈치가 보인다.

▶2면에 계속

거창=김용명 기자 hjkim@bulgyo.com

현 판 불교신문 법보시캠페인

어려운 이웃과 포교현장에
불교신문을 보냅시다 1구좌 5,000원

포교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과 포교현장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불교신문' 법보시 운동 을 시작합니다.
비록 한 장의 신문이지만 포교사 현장 이웃의 여망을 하고 있습니다.
포교환경이 열악한 교도소, 군부대, 병원 등 포교사의 손길이 필요한 현장에서 불자님들의 자비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시공덕 중 으뜸은 법보시이며 자기 자신과 후대를 위한 선 업을 짓는 일입니다.
'불교신문 법보시 운동' 참여는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부처 님 법을 안내 수 있는 좋거점을 주는 일입니다. 나눔의 기쁨에 많은 동참 당부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신문사

■ 매자기획시업부 (02) 730-4488 ■ 문자전송 (010-4157-4406)

대원·성파·성우스님 원로의원 선출

의장단 3년 단임제
선출직 연령 상향조정
종헌개정 의견 모아

대원스님(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성파스님(대광명사 주지), 성우스님(불교텔레비전 대표이사)이 신임 원로의원으로 선출됐다. 조계종 원로회의(이상 일운스님)는 지난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42차 회의를 열고 38명의 원로의원을 선출했다. 38명의 스님이 새로 선출되면서 원로의원 스님은 총 259명으로 확장됐다. ▶관련기사 3면

회의에서는 법인법 제정 및 승적 관련 특별조치법 제정 등 종무보고와 종헌개정안 논의의건, 원로의원의 명예위원 위촉의 건, 원로원의 외원 선출의 건이 다뤄졌다.

종헌개정안과 관련해, 종정의 세 임을 70세로 상향하고, 원로원의 의장 및 부의장 임기를 3년으로, 원로의장은 단임으로 개정할 것과 총무원장 및 재심호계원장 자격을 승납 40세, 세납 하세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원로의원을 역임한 도선, 이두, 능원, 도원, 보성, 활안, 원명, 등촌, 지혜, 초우스님 등 10명을 명예원로의원으로 추대했다.

이와 함께 원로의원의 부의장 명선스님에게 종정예우 표창을 수여했다. 지난해 여수에서 열린 WFB 제26차 세계불교도우의회를 성공적으로 이근 공로를 치하한 것이다.

한편 원로의장 일운스님은 이날 회의에서 "열심히 신부편을 하겠다"며 "마속한 원이 있다라도 협력해달라"고 부탁했다.

또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종단세산 만일을 원칙적으로 처단할 수 있게 된 대법원 등기에구 제정에 성과와 함께 종단 구성원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권리제한을 해지하는 법인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총무원장 스님은 "종단을 위해는 이른 스님들이 뜻을 모 반들어 종단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줬다"고 인사했다.

이현경 기자 ecrazy@bulgyo.com

거창지역 산 중턱에 위치한 토굴. 60년 된 시골 농가를 개조한 것으로 매서운 겨울 추위를 다준이에 장작을 때며 보내고 있다.

선묵스님 '룸비니 평화의 불을 모시며' 14면

능인향당 순수 원향의 명가
www.nihwa.com

능인향당의 향제품은 순수하고 안전하기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능인향당의 침향 전 제품은 베트남 자연산 침향으로만 제작이 되고 있으며,
품가 최고의 품질향과 선물 및 공양용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 초파일 기념 신제품 '능인백련향' 출시 / 주문 접수

능인향당 부산진시장 매장 모습.

진시장에서 보이는 해운대와 오륙도 풍경.

부산시 해운대구 중2동 1509-5번지(해운대 당당이길 117번지 17-11) 2층 Tel 051.746.6818